

번역문

박근혜 대통령 주최 국민만찬
요아힘 가우크 연방대통령의 만찬사
2015 년 10 월 12 일

올해는 중요한 기념일들을 기리는 한 해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우리는 제 2 차 세계대전 종식을 기리며, 65 년 전에 끔찍한 형제 간 전쟁이자 대리전이 발발했음을 기억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한반도는 분단되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독일과 독일 통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국가 한국이 여전히 갈라져 있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의 독일 방문을 즐겨 기억합니다. 방독 당시 대통령님께서서는 한반도 분단 기간을 “70 년의 긴 세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또 다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통일에 대한 강함 염원이 근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분단의 경험이 우리를 연결해 준다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드레스덴 선언’으로 알려진 연설을 오늘날 유럽 화해를 상징하는 주요 도시인 드레스덴에서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연대감을 잘 드러내 줍니다. 대통령께서는 독일 통일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우리 독일인들에게 상기시켰고, 그 말씀 역시 매우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독일은 한국이 통일을 이룰 수 있고 이웃국가와 화해할 수 있도록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진심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양국 관계가 이토록 탁월하게 발전한 것에 대해 저는 대통령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번 국민방문은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의 가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우리의 신봉을 통해서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 우리가 견실하고 살아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큰 공동의 도전들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더욱 촉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계 평화는 상이한 형태의 전쟁과 테러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합해서 폭력과 박해를 피해 탈출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우리는 또한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로서 기후보호에 대해서도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저런 커다란 도전들에 직면한 것을 생각하면, 양국 간에 다수의 양자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접촉을 통해서 양국관계는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보다 긴밀한 네트워크로 발전하게 됩니다. 1 년 전 독일 외무장관이 이곳을

방문했고, 올해에는 한국 외교장관이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6월에 베를린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발족하여 양국 교류의 탁월한 장으로 발전한 한독포럼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참석했던 12차 한독포럼을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차 한독포럼은 옛 동서독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고슬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때의 만남 또한 한국을 향한 저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데 기여했습니다.

우리 양국은 150년 전부터 교역을 해왔습니다. 독일에서는 한국 경제의 성공역사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힘든 전후시기 이후 단기간 안에 농업국가에서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으로 발전했으며, 오늘날 조선, 전자, 반도체, 자동차 부문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독일 기업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중요한 시장에 속합니다. 양국 간의 교역규모는 지난 25년간 무려 5배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독일은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크게 지지했으며, 이 협정은 양국간 경제 교류에 새로운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독일 사이에도 경제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개방과 공정한 경쟁 그리고 투자안전성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이 분야에서 후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동아시아 지역의 선구자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류'는 지난 수년간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 대다수 국가로 진출했으며, 독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국 내에서는 독일의 고전음악과 고전문학이 여전히 사랑 받고 있습니다.

교육이 가진 큰 의미도 문화유산에 포함됩니다. 독일 음악대학에서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출신 유학생들을 보고 제가 종종 매우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꼭 언급하고 싶습니다. 양국을 이어주는 또 다른 중요한 가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양국에 매우 중요한 교육과 학술입니다. 교육과 학술이야말로 우리 양국의 미래를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문에서의 한국과 독일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50여 개의 대학 간 파트너십과 한국 대학에서 강의하는 60명 이상의 독일 교수들이 양국 간의 학술 교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독일 대학들이 한국에 분교를 내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학술적 교류를 통해 가치 있는 인연들이 맺어지고, 이러한 인연은 종종 평생 유지되기도 합니다. 독일 대학에서 공부한 한국 졸업생들의 모임인 '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번 국민 방문 여행에 중요한 지도적 인사들이 저와 함께 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화의 차원들과 네트워크가 더욱 확충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지 독일 통일 과정의 기억들뿐만 아니라 복지국가 확충을 위한 우리의 노력, 그리고 양국을 보다 더 가깝게 해주는 교육과 연구와 하이테크의 발전에 있어서도 우리는 더욱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잔을 들어 박 대통령님 안녕과 탁월한 우리 양국관계 그리고 우리의 깊은 우정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건배를 제의합니다!